

# 미용성형과 안전을 다룬 연구 현황

김계경\*, 김영아\*\*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yakim@jejunu.ac.kr

##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Cosmetic Surgery and Safety

Gye Gyoung Kim\*, Young A Kim\*\*

\*Dep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에서는 미용성형과 안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였다. 2000~2020년에 출판된 33편의 논문을 기반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검토를 하여, 3개의 이슈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의학적 이슈는 미용성형의 치료적 효과나 미용성형으로 발생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 법적 이슈는 미용성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법적 판결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연구되었다. 세 번째, 사회적 이슈는 미용성형 광고 및 기사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미용성형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학습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가 있었다. 미용성형 분야의 안전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의료소비자는 미용성형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미용성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용성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학적, 법적,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의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서론

한국은 세계에서 미용성형이 가장 보편화된 국가 중 하나로, 미용성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 미용성형은 환자의 외모와 심리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미용성형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사고 및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미용성형과 안전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2]. 통합적 고찰은 현상에 대한 결론을 속성이나 주제로 도출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수행된 미용성형과 안전에 대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미용성형과 안전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용성형과 안전을 함께 다룬 한국의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미용성형과 안전을 다룬 33편의 연구논문을 Whittemore와 Knaff

### 3. 결과

미용성형과 안전을 다룬 연구 33편은 2000~2020년 사이에 꾸준히 출판되었고, 특히 2015년에 7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의 설계는 사례연구 19편 (57.6%), 문헌고찰 7편 (21.2%), 조사연구 4편 (12.1%), 질적연구 3편 (9.1%)이었다. 연구의 샘플은 환자 17편, 광고 1편, 기사 1편, 성인 여성 1편, 성형외과 코디네이터 1편, 법적 판결문 3편, 의료기기 1편, 안전사고 1편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분야는 ‘의약학’ 22편, ‘사회과학’ 10편, ‘학제간 연구’ 1편이었다. 최종 검토 결과 3가지 큰 범주인 의학적 이슈, 법적 이슈, 사회적 이슈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의학적 이슈 범주의 논문은 총 21편으로 사례연구가 16편, 서술적 조사연구가 4편, 문헌고찰 연구가 1편이었다, 법적 이슈로 범주화한 논문은 총 9편으로 문헌고찰 연구가 6편, 사례연구가 3편이었다, 사회적 이슈 범주의 논문들은 총 3편으로 모두 질적연구였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 선택된 문헌들의 주요 학술연구 분야는 의학이며

법학, 사회학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의학적, 법적, 사회적 이슈 모두 최근으로 갈수록 주류 학술연구 분야 외 다른 학술연구 분야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학적 이슈에서는 간호학이, 법적 이슈에서는 의학이, 사회적 이슈에서는 여성학이 참여하고 있었다. 증가하는 사회적 관심과 안전 문제 발생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학술연구 분야가 협력하여 미용성형과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의료 및 성형외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 기술과 재료의 도입은 안전성과 효과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성형 수술의 소비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1][4][5], 미용성형을 추구하는 청소년 및 젊은 세대에 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해 보인다. 10대나 젊은 성인의 미용성형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발표된 학술논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리고, 검색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논문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문헌 검색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식별할 가능성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리뷰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검색이나 선택 과정에서 관심 있는 모든 논문이 식별되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는 미용성형 안전 연구에 있어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미용성형 소비자, 의료진, 기업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미용성형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Gallup Korea, “Appearance and recognition of cosmetic surgery - 1994/2004/2015/2020 compare [Internet]”, Gallup Korea, 2020. Available From: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97>
- [2]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Research on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safety of plastic surgery (procedure) users [Internet]”,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6. Available From: <https://www.neca.re.kr/lay1/program/S1T11C145/report/view.do?seq=225>
- [3] Whittemore, Robin, and Kathleen Knafel, “The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2, No. 5, pp. 546–553, 2005.
- [4] Pearlman, Ross L.,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likelihood to undergo cosmetic surgical procedures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 narrative review”, *Clinical, Cosmetic and Investigational Dermatology*, Vol. 15, pp. 859–877, 2022.
- [5] Rohrich, Rod J., and Min-Jeong Cho, “When is teenage plastic surgery versus cosmetic surgery okay? Reality versus hype: a systematic review”,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Vol. 142, No. 3, pp. 293e–302e, 2018.